

해파리 (Haepaary) 프랑스 상륙

- 종묘제례악과 국악을 재해석한 일렉트로닉 사운드의 향연

주프랑스한국문화원(원장 이일열)은 오는 3월 6일, 파리 시립극장 사라 베른하르트(Théâtre de la Ville - Sarah Bernhardt)에서 독창적인 일렉트로닉 국악 듀오 ‘해파리’의 공연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조선 왕실의 제례에서 연주되던 ‘종묘제례악’과 남창가곡 등 전통 국악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무대로, 앰비언트와 테크노 장르를 결합한 새로운 음악 세계를 선보일 예정이다.

‘해파리’는 현대무용 음악감독이자 프로듀서로 활동 중인 혜원(인스트루먼트)과 공연예술가 민희(보컬)로 구성된 듀오로, 전통 국악을 기반으로 한 독창적인 일렉트로닉 사운드를 창조하고 있다. 유년 시절부터 국악 연주자로 활동해온 두 아티스트는 각각 사물놀이와 가곡을 전공했으며, 전통과 현대의 경계를 넘나드는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2021년 첫 EP 앨범 Born by Gorgeousness를 발표한 이후, 해파리는 세계 최대 음악 마켓인 SXSW(South by Southwest) 쇼케이스에 2021년과 2022년 연속 초청되었으며, 미국 공영방송 NPR의 All Songs Considered가 선정한 ‘2021년 SXSW 기대주 11팀’ 중 하나로 주목받았다.

특히, 데뷔 앨범 Born by Gorgeousness는 제19회 한국대중음악상에서 ‘최우수 일렉트로닉 음반’ 부문을 수상했으며, 별도로 발표한 싱글 ‘경포대로 가서 (go to gpd and then)’로는 ‘최우수 일렉트로닉 노래’ 부문에서도 수상의 영예를 안으며 2관왕에 올랐다.

두 아티스트 모두가 공통적으로 애정을 가져온 종묘제례악에서 영감을 받은 해파리의 음악은, 한국 전통의 깊이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얼터너티브 일렉트로닉 사운드로 프랑스 관객들에게 신선한 울림을 선사할 것이다.

담당 부서	주프랑스 한국문화원	책임자	원장	이일열 (+33 01-4720-8415)
		담당자	실무관	이성은 (+33 01-4720+8648)

